

『5·18세계민주대학 설립 및 운영 종합계획』

목 차

제1장. 설립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정당성

동학혁명에서 빛의 혁명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장대한 여정
식민 경험을 넘어 경제 선진국·민주국가로의 도약
2025.12.3 시민 주권 수호와 민주주의 완성의 의미
K-민주주의의 세계사적 가치
5·18정신의 보편성과 세계화 필요성

제2장. 설립 비전과 교육철학

대학의 설립 이념: “민주주의는 살아있는 정신이다”
5·18정신과 지혜민주주의
빛의 혁명과 시민 주권 철학
K-pop·K-culture와 민주적 창조성
민주주의와 정신 혁명의 융합 모델

제3장. 대학의 성격과 운영 구조

국제 특성화 민주대학 모델
학위 과정(학사·석사·박사) 및 비학위 과정
글로벌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운영
국제 협력 네트워크(UN·UNESCO·세계 시민단체 등)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구조

제4장. 학부 및 교육과정 구성

민주주의학부
세계 민주혁명사
헌정질서와 시민 저항 이론
평화적 저항과 시민행동 전략

K-민주주의학부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 연구
디지털 민주주의
시민 참여 플랫폼 연구

문화민주주의학부
K-pop과 청년문화
예술과 저항
문화외교와 글로벌 시민성

AI·디지털시대 민주학부
AI와 민주주의
정보주권과 데이터 권리
디지털 윤리와 시민교육

제5장. 세계민주 리더 양성 프로그램

글로벌 청년 민주리더 과정
개발도상국 민주 역량강화 프로그램
민주주의 현장연수 및 시민참여 실습
세계 청년 민주캠프
국제 민주 포럼 운영

제6장. 연구소 및 부설기관 설치

5·18세계민주연구소

빛의 혁명 아카이브센터
K-민주주의 국제전략센터
세계청년민주연대 플랫폼
민주주의 디지털 아카이브

제7장. 캠퍼스 및 인프라 구축

광주 5·18 상징 공간과 연계
민주광장·기념관·체험관 조성
AI 기반 글로벌 온라인 캠퍼스
민주 체험 시뮬레이션센터
국제 기숙사 및 교환학생 인프라

제8장. 재정 및 운영계획

국가·지자체 지원 모델
국제기구 및 글로벌 펀딩 유치
민간 후원 및 시민참여 기금
단계별 예산 계획(5개년 로드맵)
지속가능 경영 전략

제9장. 세계화 전략

K-민주주의 글로벌 브랜드화
노벨평화상 연계 전략
국제 민주교육 표준 모델 개발
글로벌 청년 네트워크 구축
세계민주도시 연합체 구성

제10장. 기대효과 및 국가적 의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세계적 위상 강화
민주주의 수출국으로의 도약
청년 세대의 영혼을 깨우는 세계교육
민주주의와 문화가 결합된 국가 브랜드 창출
인류 보편가치를 선도하는 선도국 대한민국

제1장. 설립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정당성

1. 동학혁명에서 빛의 혁명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장대한 여정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단절이 아닌 계승의 역사였다. 1894년의 동학 농민운동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선언으로 민중 주권의 씨앗을 뿌렸다. 1919년 3·1운동은 식민 권력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민족 자결의 의지를 세계에 알렸다. 1960년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부정선거에 맞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사건이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국가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처절한 증언이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직선제 개헌을 끌어내며 제도 민주주의를 확립했다.

그리고 2016년의 촛불집회와 2025년 12월 3일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진압한 ‘빛의 혁명’은 민주주의가 제도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일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가치임을 증명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 한 세기 넘게 이어진 주권의 연속성이다.

2. 식민 경험을 넘어 경제 선진국·민주국가로의 도약

대한민국은 제국주의 국가가 된 적이 없다. 오히려 식민 통치를 겪은 나라다. 그런데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를 이루었고, 동시에 민주화를 완성했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경로다.

경제 성장과 정치적 자유를 함께 성취한 국가는 많지 않다. 더구나 시민 저항의 힘으로 권력을 교체하고 헌정을 회복해온 사례는 더욱 드물다.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과 압축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국가다. 이것이 5·18 세계민주대학이 가져야 할 역사적 자부심의 출발점이다.

3. 2025.12.3 시민 주권 수호와 민주주의 완성의 의미

2025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 날이다. 친위적 권력 시도가 등장했을 때, 시민은 분노로 대응하지 않았다. 광장을 밝히는 빛으로 응답했다.

그날의 의미는 단순한 저항이 아니다. 시민이 헌정질서의 최종 수호자임을 스스로 증명한 사건이었다. 군홧발이 아닌 시민의 연대가 질서를 회복했다. 이는 폭력적 혁명이 아닌, 성숙한 민주 시민혁명이었다.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역사에 새겼다.

4. K-민주주의의 세계사적 가치

K-pop이 전 세계 청년의 감성을 흔들고 있다면, K-민주주의는 전 세계 시민의 영혼을 깨울 수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비폭력 시민연대.

둘째, 헌정질서 안에서의 개혁.

셋째, 문화와 민주주의의 결합.

민주주의는 더 이상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했다. 빛의 혁명은 시민이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 되는 모델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K-민주주의의 세계사적 의미다.

5. 5·18정신의 보편성과 세계화 필요성

5·18정신은 지역의 기억이 아니다. 인간 존엄, 연대, 책임의 가치다. 억압에 굴하지 않는 시민 용기와 공동체적 희생은 인류 보편의 가치다. 이제 그 정신을 교육으로 승화해야 한다. 5·18세계민주대학은 단순한 대학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 여정의 집약체이며,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플랫폼이다.

동학에서 시작된 “사람이 하늘”이라는 선언은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 이제 그 정신을 세계와 공유해야 한다. 그것이 인류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며, 대한민국이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길이다.

제2장. 설립 비전과 교육철학

1. 대학의 설립 이념: “민주주의는 살아있는 정신이다”

5·18 세계민주대학의 설립 이념은 분명하다.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정신이다. 민주주의는 헌법 조문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광장에서, 교실에서, 문화 속에서, 일상의 선택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제도가 무너질 때 그것을 다시 세우는 힘은 시민의 정신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이 대학은 단순히 정치학을 가르치는 기관이 아니다. 시민정신을 깨우고, 책임을 배우며, 공공성을 실천하는 ‘정신 교육의 장’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권력 쟁취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지키는 윤리다. 다수결의 논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다. 이 대학은 지식 전달을 넘어, 민주적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를 지향한다.

2. 5·18정신과 지혜민주주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단순한 저항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폭력 앞에서 어떻게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가를 보여준 역사다. 시민들은 서로를 지켰고, 질서를 스스로 유지했으며, 공동체적 책임을 선택했다.

이 정신은 오늘날 ‘지혜민주주의’로 확장된다. 지혜민주주의란 감정적 대립을 넘어 숙의와 성찰을 통해 공동의 해답을 찾는 민주주의다. 분열과 혐오를 동력으로 삼는 정치가 아니라, 집단지성과 윤리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다.

5·18 세계민주대학은 5·18정신을 세계 민주주의의 교과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지역의 기억을 인류 보편의 가치로 승화시키는 일, 그것이 대학의 역사적 사명이다.

3. 빛의 혁명과 시민 주권 철학

빛은 폭력을 대체한 시민의 언어였다. 촛불집회에서 시작되어 2025년

12월 3일 계엄을 시민의 힘으로 진압한 '빛의 혁명'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시민은 무기를 들지 않았다. 대신 빛을 들었다. 분노 대신 연대를 선택했다. 그 결과 권력은 시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것이 시민주권 철학의 본질이다.

주권은 위임된 권력이 아니다. 주권은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 속에서 살아있다. 5·18 세계민주대학은 이 철학을 이론과 실천으로 체계화하여, 세계 시민이 배울 수 있는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4. K-pop·K-culture와 민주적 창조성

K-pop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참여와 연대, 공동체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문화 현상이다. 팬들은 국경을 넘어 연결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집단적 창조성을 발휘한다.

민주주의 역시 참여와 다양성,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다. K-pop과 K-culture는 민주주의의 문화적 표현이다. 수평적 소통, 팬과 예술가의 상호작용, 디지털 플랫폼 기반 참여는 새로운 민주적 문화 모델을 보여준다.

5·18세계민주대학은 정치와 문화를 분리하지 않는다. 문화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읽어내고, 민주주의를 문화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교육한다.

5. 민주주의와 정신혁명의 융합 모델

민주주의는 제도 혁명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신 혁명이 동반되어야 한다. 물질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내면은 더욱 중요해진다. 분열과 혐오, 극단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를 극복하는 힘은 시민의 성숙한 정신에서 나온다.

5·18세계민주대학은 민주주의를 정신혁명과 결합한다. 이는 인간 존엄, 책임, 연대,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 모델이다.

정치적 자유 위에 윤리적 성숙을 더하는 것, 권리 위에 책임을 더하는

것, 다수결 위에 속의를 더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와 정신혁명의 융합이다.

이 대학은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기관이 아니다. 미래의 민주주의를 설계하는 플랫폼이다. 빛의 혁명으로 완성된 시민주권의 정신을 세계와 공유하는 것, 그것이 5·18세계민주대학의 궁극적 비전이다.

제3장. 대학의 성격과 운영 구조

1. 대학의 정체성: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특성화 글로벌 대학'

5·18세계민주대학은 일반 종합대학이 아니다. 이 대학은 민주주의를 전문적으로 연구·교육·실천하는 세계 최초의 특성화 글로벌 대학을 지향한다.

그 정체성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역사 기반형 대학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정신적 토대로 삼는다.

둘째, 실천 지향형 대학이다. 민주주의를 이론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시민 참여·숙의·연대·공공윤리를 실습한다.

셋째, 세계 확장형 대학이다. 대한민국 민주 여정을 인류 보편가치로 전환하여 세계 시민과 공유한다.

이 대학은 과거를 기념하는 기관이 아니라, 미래 민주주의를 설계하는 국제 플랫폼이다.

2. 대학의 법적 성격과 설립 형태

5·18세계민주대학은 다음과 같은 이중 구조 모델을 지향한다.

① 특수목적 공공대학 모델

-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가 설립을 지원

- 독립적 이사회 운영
-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

② 국제 협력형 네트워크 대학 모델

- 해외 대학과 공동학위 운영
- 글로벌 연구기관과 MOU 체결
- 국제기구와 협력 프로젝트 추진

이 모델은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결합한 형태다.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적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3. 학사 운영 구조

1) 학위 과정

학사 과정(민주주의학, 시민리더십학 등)
석사 과정(세계민주정책학, 디지털민주주의학)
박사 과정(비폭력저항이론, 시민주권철학 등)

2) 비학위 및 단기 과정

글로벌 청년 민주캠프
국제 공직자 민주역량 강화 과정
개발도상국 민주교육 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글로벌 시민강좌(MOOC)
학사 운영의 핵심은 이론 + 현장실습 + 국제교류의 삼각 구조다.
학생은 교실을 넘어 광장과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한다.

4. 대학 조직 구조

① 이사회(최고 의결기구)

국내외 석학
시민사회 대표

국제 민주 전문가

문화·청년 대표

이사회는 대학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② 총장단

총장 1인

국제부총장

교육·연구 부총장

대외협력 부총장

③ 부설 연구기관

5·18세계민주연구소

빛의혁명 아카이브센터

디지털민주주의 연구센터

K-민주주의 국제전략센터

④ 행정·운영본부

국제협력처

학사운영처

시민참여센터

재정·기획처

운영 구조는 학문·시민·국제·문화가 결합된 다중 네트워크형 조직이다.

5. 글로벌 협력 체계

5·18세계민주대학은 국내 대학에 머물지 않는다.

국제기구 및 글로벌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예시 협력 대상:

유엔

유네스코

세계 민주연구기관

국제 인권단체

글로벌 청년 네트워크

이를 통해 세계 민주교육의 표준 모델을 개발한다.

6. 운영 원칙

1. 정치적 중립성

특정 정파가 아닌 민주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2. 학문적 자유

다양한 사상과 견해가 공존하는 개방형 연구 구조를 유지한다.

3.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시민 대표가 대학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4. 투명 재정 운영

공공성과 국제 신뢰 확보를 위해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7. 단계별 발전 구조

1단계(설립기, 1~3년)

- 특성화 대학 설립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온라인 글로벌 강좌 개설

2단계(성장기, 4~7년)

- 국제 공동학위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민주포럼 정례화
- 세계 청년 민주연대 출범

3단계(확장기, 8년 이후)

- 세계 민주대학 연합체 창설
- 국제 민주교육 표준 수립
- K-민주주의 브랜드 확립

결론: 미래 민주주의의 플랫폼

5·18세계민주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경험을 제도화하고, 세계와 공유하는 국제 민주 플랫폼이다.

광장의 빛을 교실의 지혜로, 역사의 기억을 미래의 교육으로,

시민의 정신을 세계의 가치로 확장하는 구조. 이것이 5·18세계민주대학

의 성격이며 운영 구조다.

제4장. 학부 및 교육과정 구성

5·18세계민주대학의 교육과정은 단순한 전공 나열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경험과 세계 보편 가치를 결합한 실천형·융합형·국제형 교육모델이다.

이 대학의 교육은 세 가지 원칙 위에 설계된다.

- ① 이론과 현장의 결합
- ② 민주주의와 문화의 융합
- ③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성

1. 민주주의학부

민주주의학부는 대학의 핵심 축이다. 대한민국 민주 여정과 세계 민주 혁명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주요 교과과정:

세계 민주혁명사 (동학농민운동, 3·1운동,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비교 연구), 헌정질서와 시민저항 이론, 비폭력 저항과 시민연대 전략, 인권과 법치주의, 평화적 권력 이행 사례 연구. 이 학부는 민주주의를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가치 체계로 이해하도록 교육한다.

2. K-민주주의학부

K-민주주의학부는 대한민국 민주 모델의 세계화를 담당한다.

주요 교과과정: 촛불혁명과 시민 주권 철학 (촛불집회 연구 포함)

2025년 시민 계엄 진압 사례 분석

디지털 민주주의와 플랫폼 참여

속의 민주주의와 시민배심제

시민참여 정책 설계 실습

이 학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 모델을 이론화하고
글로벌 교육 콘텐츠로 개발한다.

3. 문화민주주의학부

민주주의는 정치 영역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확산된다. 문화민주주의학부는 K-culture를 민주주의 확산의 매개로 연구한다.

주요 교과과정:

K-pop과 참여 문화

문화외교와 글로벌 시민성

예술과 저항

전통문화와 공동체 가치

디지털 팬덤과 민주적 네트워크

이 학부는 문화적 창조성과 시민 참여의 관계를 분석하여
민주주의의 문화적 확장 모델을 제시한다.

4. AI·디지털민주학부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AI, 플랫폼 권력, 정보 왜곡, 데이터 주권 문제 등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다.

주요 교과과정:

AI와 민주주의

데이터 권리와 정보 주권

알고리즘 윤리

온라인 시민참여 시스템 설계
디지털 공론장 운영 실습
이 학부는 민주주의와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미래형 민주 모델을 연구한다.

5. 세계민주 리더십학부

세계민주 리더십학부는 실천형 지도자를 양성한다.
주요 교과과정: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기구 협력 전략
갈등 조정과 평화 구축
현장실습(지역사회·국제 NGO)
민주적 리더십 훈련
이 과정은 개발도상국 청년과 함께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계 시민 리더를 육성한다.

6. 교육 운영 방식의 특징

- ① 광장형 수업 모델
역사 현장과 시민 공간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
- ② 숙의·토론 중심 수업
단순 강의가 아닌 참여형 세미나 운영
- ③ 국제 공동 강의
해외 대학과 실시간 공동 수업
- ④ 현장 프로젝트 의무화
모든 학생은 지역사회 민주 프로젝트 수행
- ⑤ 글로벌 온라인 캠퍼스 구축
다국어 MOOC 운영

결론: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게 하는 교육

5·18세계민주대학의 교육과정은 지식을 암기하는 체계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광장의 빛을 교실로 가져오고, 교실의 지혜를 세계로 확장하는 교육.
이것이 제4장의 핵심이다.

제5장. 세계 민주 리더 양성 프로그램

5·18세계민주대학의 궁극적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 민주주의를 이끌 실천형 리더를 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 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이론'이 아니라 '능력'으로 체화하는
세계민주 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구조를 제시한다.

1. 글로벌 청년 민주 리더 아카데미

이 프로그램은 세계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목표는 차세대 시민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주요 구성

대한민국 민주 여정 집중 세미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 체험

6월 민주항쟁 사례 연구

빛의 혁명 시민 참여 모델 분석

숙의 토론 및 정책 제안 실습

참가자는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국가 상황에 적용 가능한 민주 전략을 설계한다.

2. 개발도상국 민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대한민국의 경험은 민주주의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에게
현실적 모델이 될 수 있다.

교육 내용

평화적 시민저항 전략

선거 공정성 확보 시스템

시민 감시와 공공성 강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설계

갈등 완화 및 사회 통합 기술

특히 유엔 및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인증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다.

3. 민주주의 현장연수 및 실천 프로젝트

모든 리더십 과정에는 현장 프로젝트가 의무화된다.

운영 방식

지역사회 민주 프로젝트 설계

시민참여 예산제 실습

공론장 운영 시뮬레이션

청년-노인 세대 협력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는 실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실천적 역량을 체득한다.

4. 세계 청년 민주캠프

4세계 청년 민주캠프는

민주주의와 문화가 결합된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

K-민주주의 사례 강의

K-pop과 시민문화의 관계 탐구

전통문화 체험과 공동체 가치 교육

국제 청년 정책 해커톤

이 캠프는 민주주의를 축제와 학습이 결합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 발전시킨다.

5. 국제 민주포럼 및 정책 리더 트랙

고위 공직자 및 정책결정자를 위한 과정이다.

구성

헌정 위기 대응 전략

시민 신뢰 회복 모델

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국제 민주 네트워크 구축

이 트랙은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능력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설계하는 능력을 기른다.

6. 3단계 리더 양성 체계

1단계: 시민 리더(Community Leader)

- 지역 기반 민주 프로젝트 수행

2단계: 국가 리더(National Leader)

- 정책 설계 및 공론장 운영 능력 확보

3단계: 세계 리더(Global Leader)

- 국제 협력과 민주 가치 확산 주도

결론: 빛을 계승하는 세계 시민의 탄생

세계민주 리더 양성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민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는 핵심 장치다.

광장에서 빛을 들었던 시민의 정신을

세계 청년의 손으로 이어주는 과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5·18세계민주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 인재 양성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제6장. 연구소 및 부설기관 설치

5·18세계민주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의 지식 허

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 기반과 전문 부설기관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 장에서는 민주주의의 이론화·기록화·국제화·디지털화를 담당할 핵심 연구기관 설립 계획을 제시한다.

1. 5·18세계민주연구소

(1) 설립 목적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다.

(2) 주요 기능

한국 민주주의 통사 연구

세계 민주혁명 비교 연구

비폭력 시민저항 이론 정립

국제 학술지 발간

연례 '세계민주포럼' 개최

이 연구소는 5·18정신을 지역의 기억에서 인류 보편 가치로 승화시키는 핵심 기관이 된다.

2. 빛의혁명 아카이브센터

(1) 설립 목적

촛불집회 및 2025년 시민 계엄 진압 사례 등 현대 민주 운동을 디지털로 보존한다.

(2) 주요 기능

영상·사진·증언 자료 수집

구술사(Oral History) 기록

AI 기반 자료 검색 시스템 구축

국제 공동 아카이브 네트워크 형성

이 센터는 '빛의 혁명'을 세계 민주주의 교육 자료로 체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디지털 민주주의 연구센터

(1) 설립 배경

AI와 플랫폼 시대는 민주주의에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왔다.

(2) 연구 분야

AI와 민주주의 거버넌스

알고리즘 투명성 연구

데이터 주권 모델 개발

온라인 공론장 설계

가짜뉴스 대응 시스템

이 센터는 미래 민주주의의 기술적 기반을 연구하는 전략 기관이다.

4. K-민주주의 국제전략센터

(1) 설립 목적

대한민국 민주 모델의 국제 확산 전략을 수립한다.

(2) 주요 기능

민주주의 전환국 컨설팅

국제기구 협력 프로젝트

글로벌 민주교육 표준 개발

세계민주도시 네트워크 구축

유엔 및 유네스코와의 협력도 추진한다.

이 센터는 K-민주주의의 세계 브랜드화를 담당하는 핵심 플랫폼이다.

5. 세계청년민주연대 플랫폼

4(1) 설립 목적

세계 청년을 연결하는 민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 주요 기능

글로벌 청년 리더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례 세계청년민주총회 개최
온라인 협력 프로젝트 운영
민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이 플랫폼은 미래 민주주의의 세대 기반을 형성한다.

6. 민주정신 교육연구원

주요 역할
민주 시민교육 교재 개발
초·중·고 연계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 과정 운영
지역사회 민주 아카데미 지원
이 연구원은 민주주의를 대학 울타리를 넘어
국민 교육 차원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7. 운영 구조 및 단계별 설치 계획

1단계(설립기)
5·18세계민주연구소
빛의혁명 아카이브센터
2단계(확장기)
디지털민주주의 연구센터
국제전략센터
3단계(세계화 단계)
세계청년민주연대 플랫폼
민주정신 교육연구원

결론: 지식과 기억,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기관
연구소와 부설기관은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경험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세계와 공유하는 두뇌
다. 광장의 기억을 학문으로, 학문을 정책으로, 정책을 세계 시민의 가치

로 확장하는 구조. 이것이 제6장의 핵심이며, 5·18세계민주대학이 세계 민주주의 허브로 도약하는 기반이다.

제7장. 캠퍼스 및 인프라 구축

5·18세계민주대학의 캠퍼스는 단순한 건축 공간이 아니다. 이곳은 기억·교육·실천·세계 연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민주 공간이다.

캠퍼스는 세 가지 원칙 위에 설계된다.

- ① 역사적 상징성
- ② 시민 참여형 공간
- ③ 디지털 글로벌 연결성

1. 광주 상징 공간과 연계한 메인 캠퍼스 조성

5·18세계민주대학의 중심 캠퍼스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직접 연결된다.

공간 구성

민주광장(시민 집회·토론 공간), 5·18정신 기념관, 세계민주교육관
국제컨퍼런스센터, 민주기록 아카이브관

이 캠퍼스는 추모 공간과 교육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다.

기억은 학습으로 이어지고, 학습은 실천으로 확장된다.

2. 민주광장 및 체험형 학습 공간

민주주의는 강의실 안에서만 배우지 않는다. 광장과 토론장에서 체득한다.

핵심 시설

시민속의 토론장

모의의회·모의공론장 시뮬레이션실

갈등조정 실습실

평화적 시위·집회 운영 시뮬레이션 공간

특히 촛불집회와 빛의 혁명 사례를

체험형 콘텐츠로 구현하여 민주주의의 실제 작동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3. AI 기반 글로벌 온라인 캠퍼스

5·18세계민주대학은 물리적 캠퍼스를 넘어 디지털 글로벌 캠퍼스를 구축한다.

주요 인프라

다국어 MOOC 플랫폼

실시간 국제 공동 강의 시스템

AI 기반 민주자료 검색 아카이브

글로벌 시민 참여 온라인 포럼

이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민주 전환국 청년들도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 국제 기숙사 및 글로벌 교류 인프라

민주주의는 국경을 넘는 가치다. 이를 위해 국제 교류 인프라를 구축한다.

구성 요소

국제학생 전용 기숙사

글로벌 교환학생 센터

다문화 소통 공간

세계 청년 리더 라운지

이 공간은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공존하는
민주적 실험장이 된다.

5. 지속가능 친환경 캠퍼스 설계

민주주의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 따라서 캠퍼스는 친환경 설계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주요 전략

태양광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탄소중립 캠퍼스 운영

녹지 중심 열린 공간 설계

시민 개방형 공원 구조

민주주의는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는 가치임을 공간으로 표현한다.

6. 단계별 구축 계획

1단계(1~3년)

부지 확보 및 기본 설계

민주광장 및 교육관 1차 완공

온라인 글로벌 플랫폼 구축

2단계(4~7년)

국제컨퍼런스센터 완공

디지털 아카이브 완성

국제기숙사 운영 시작

3단계(8년 이후)

세계민주도시 연합 거점화

글로벌 분교 또는 협력캠퍼스 설립

국제 민주연구 클러스터 조성

결론: 기억과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

5·18세계민주대학의 캠퍼스는 과거를 기념하는 공간을 넘어 미래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공간이다.

광장의 빛을 담은 민주광장, 지혜를 축적하는 연구관, 세계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이 인프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상징하며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제8장. 재정 및 운영계획

5·18세계민주대학은 상징적 선언에 머무르는 기관이 아니다.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재정 구조 위에서 운영되는 국가 전략형 글로벌 공공대학 모델이다.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공공성 확보
- ② 정치적 독립성 보장
- ③ 국제 협력 기반 다원적 자원 구조
- ④ 투명성과 책임성

1. 재정 조달의 기본 구조

(1)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중앙정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설립 지원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부지 및 인프라 지원

국가균형발전 예산 활용

국가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상징성과 지역 발전 전략을 결합한다.

(2) 국제기구 및 글로벌 펀딩

유엔 협력 프로젝트

유네스코 민주교육 프로그램
국제 인권 및 민주주의 재단 지원
글로벌 개발기금 및 ODA 연계
이를 통해 민주주의 교육을 국제 공공재로 확장한다.

(3) 민간 후원 및 시민 기금
민주주의 발전기금 조성
국내외 기업의 사회공헌 연계
세계 한인 네트워크 후원
시민 참여형 소액 기부 플랫폼
'빛의 혁명 기금'과 같은 상징적 시민 참여 펀드를 조성하여 대학의 정체성을 재정 구조 속에 반영한다.

2. 단계별 예산 계획(가상 5개년 로드맵)

1단계(설립기: 1~3년)
캠퍼스 부지 확보 및 설계
기본 교육관 건립
온라인 글로벌 플랫폼 구축
초기 연구소 운영
추정 총예산: 약 3,000~4,000억 원 규모

2단계(성장기: 4~7년)
국제컨퍼런스센터 건립
국제기숙사 완공
디지털 아카이브 고도화
글로벌 학위 과정 본격 운영
추정 총예산: 약 2,000~3,000억 원 추가 투자

3단계(확장기: 8년 이후)
세계민주도시 연합 플랫폼 구축

해외 협력 캠퍼스 설립

글로벌 민주연구 클러스터 조성

재원 구조: 자체 수익 + 국제협력 펀딩 중심 전환

3. 운영 수입 구조

① 등록금(국내외 학생)

② 국제 공동학위 프로그램 수익

③ 글로벌 민주교육 온라인 강좌 수익

④ 연구 프로젝트 수주

⑤ 국제 컨퍼런스 및 포럼 개최 수익

특히 디지털 캠퍼스 운영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넘어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한다.

4.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연례 재정보고서 공개

국제 회계 기준 적용

시민 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대학의 신뢰는 재정 투명성에서 시작된다.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구조를 유지한다.

5. 지속가능 경영 전략

(1) 민주 브랜드 가치 창출

K-민주주의 교육 콘텐츠의 세계 표준화

(2)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국제 대학·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추진

(3) ESG 기반 운영

친환경 캠퍼스

사회적 가치 중심 경영

투명한 거버넌스

6. 경제적 파급 효과

4광주 지역 경제 활성화

국제 컨퍼런스 관광 수요 증가

청년 고용 창출

글로벌 민주 교육 허브로서 국가 브랜드 상승

민주주의 교육은 단순한 이념 사업이 아니다.

지식·문화·관광·국제교류가 결합된 미래 산업이다.

결론: 공공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갖춘 재정 모델로 5·18세계민주대학은 국가가 책임지고, 시민이 참여하며, 세계가 협력하는 재정 구조를 갖는다.

이는 단기적 정치 사업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는 민주 인프라 투자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수입국을 넘어 민주주의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제9장. 세계화 전략

5·18세계민주대학의 세계화 전략은 단순한 해외 홍보가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경험을 인류 보편의 교육 자산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세계화 전략의 핵심은 세 가지다.

- ① K-민주주의의 브랜드화
- ② 국제 제도권 편입
- ③ 글로벌 청년 네트워크 구축

1. K-민주주의의 글로벌 브랜드화

대한민국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집회를 거쳐 비폭력 시민연대의 모델을 확립했다. 이를 'K-민주주의(K-Democracy)'

라는 통합 브랜드로 정립한다.

전략 방향

공식 영문 교재 개발

다국어 민주주의 교육 콘텐츠 제작

세계 대학 교과과정 채택 추진

국제 민주주의 연례 보고서 발간

K-pop이 문화 브랜드라면,

K-민주주의는 가치 브랜드가 된다.

2. 국제기구 및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 전략

5·18세계민주대학은 국제 제도권과 연계한다.

주요 추진 방향

유엔 산하 민주교육 프로그램 협력

유네스코 평화·인권 교육 네트워크 가입

국제 인권재단 및 민주주의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세계 민주도시 연합체 구성

이를 통해 대학은 국제 공공교육 플랫폼으로 인정받는다.

3. 세계 청년 민주 네트워크 구축

민주주의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 있다.

핵심 전략

세계청년민주총회 정례화

글로벌 민주 리더 데이터베이스 구축

온라인 민주 협업 플랫폼 운영

개발도상국 청년 장학 프로그램 확대

특히 K-pop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팬 네트워크를

시민 참여와 공공 가치 확산의 플랫폼으로 확장한다.

K-pop은 이미

전 세계 청년을 연결하는 문화적 기반이다.

4. 국제 공동학위 및 분교 설립 전략

1단계: 공동학위 프로그램
아시아·유럽 민주 연구 대학과 협력
국제 복수학위 제도 운영
2단계: 해외 협력 캠퍼스
동남아, 아프리카 민주 전환국과 협력
현지 민주교육센터 설립
3단계: 세계민주대학 연합체 창설
글로벌 민주대학 네트워크 구축
국제 학술 표준 공동 개발
이를 통해 5·18세계민주대학은
단일 캠퍼스를 넘어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장된다.

5. 국제 학술·문화 복합 전략

민주주의는 정치적 가치이면서 문화적 가치다.
추진 과제
세계 민주영화제 개최
민주예술·전통문화 국제 교류전
빛의 혁명 국제 심포지엄
글로벌 시민 참여 축제
문화와 학술을 결합한 전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부드러운 확산(soft power)을 가능하게 한다.

6. 노벨상 및 국제적 위상 전략

대한민국 민주 경험은 비폭력 시민혁명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전략적 목표

세계 민주주의 기여 공로 국제 포상 추진

국제 평화·인권상 공동 수상 프로젝트

글로벌 싱크탱크 평가 지수 참여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국제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7. 디지털 세계화 전략

AI 기반 실시간 번역 강의

글로벌 MOOC 민주 강좌

디지털 시민참여 실습 플랫폼

국제 공동 연구 클라우드 시스템

공간의 제약을 넘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주 플랫폼을 구축한다.

결론: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장

5·18세계민주대학의 세계화 전략은

대한민국의 경험을 세계의 공공 자산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빛으로 권력을 견제한 시민의 정신, 문화로 연결된 청년의 연대,

숙의와 책임을 중시하는 지혜민주주의.

이 가치를 세계와 공유할 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수입국을 넘어 민주주의를 설계하고 확산하는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제10장. 기대효과 및 국가적 의미

5·18세계민주대학의 설립은 단순한 대학 하나를 세우는 일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제도화하고, 그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는 국가적 전환 프로젝트다.

이 장에서는 대학 설립이 가져올 기대효과와 국가적 의미를 다각적으로

로 정리한다.

1.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세계적 위상 강화

대한민국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집회, 빛의 혁명을 거치며 비폭력 시민혁명의 독자적 모델을 확립했다.

이 경험을 체계화한 교육기관이 설립될 경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수혜국이 아니라 민주주의 모델 제공국으로 자리매김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상징을 넘어, 국가 브랜드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2. 민주주의 수출국으로의 도약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위기와 후퇴가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험은 평화적 전환과 시민 연대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5·18세계민주대학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민주 전환국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헌정 위기 대응 전략 공유

비폭력 시민저항 모델 연구 확산

디지털 민주주의 설계 지원

이는 무력이나 자본이 아닌 가치와 경험을 수출하는 국가 전략이다.

3. 청년 세대의 영혼을 깨우는 교육 혁신

민주주의는 기성세대의 기억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청년 세대의 참여와 공감은 필수적이다. 특히 K-pop을 통해 형성된 글로벌 청년 네트워크는 민주 가치 확산의 잠재적 기반이 된다.

5·18세계민주대학은 정치와 문화를 연결하여 청년의 창조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일깨운다.

이는 민주주의를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체득하게 하는 교육 혁신이다.

4.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기여

광주를 세계 민주교육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은 단순한 지역 정책이 아니다.

국제 학술회의 및 포럼 유치

청년·연구 인력 유입

글로벌 관광 수요 증가

문화 산업과 연계된 경제 효과 창출

민주주의는 지역의 기억을 세계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동력이 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5. 민주주의와 정신혁명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드문 국가다. 이제 그 위에 정신적 성숙을 더해야 한다.

5·18세계민주대학은 민주주의를 권력 구조의 문제를 넘어 인간 존엄과 공동체 책임의 가치로 확장한다.

이는 제가 주장해 온 '지혜민주주의'와도 맥을 같이한다.

민주주의를 감정적 대립의 장이 아니라 숙의와 책임의 문화로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국가 패러다임의 진화다.

6. 대한민국의 미래 정체성 확립

K-pop이 세계 문화를 흔들고 있다면, K-민주주의는 세계 시민 의식을 흔들 수 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제국의 모방자가 아니다. 식민 경험을 극복하고, 시민의 힘으로 헌정을 지켜낸 나라다.

5·18세계민주대학은 그 정체성을 제도화하는 상징적 기관이다.

결론: 빛의 경험을 인류의 자산으로

5·18세계민주대학의 설립은 과거를 기념하는 사업이 아니다. 빛으로 권력을 견제했던 시민의 정신을 세계의 교육 자산으로 만드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을 넘어 민주 가치 선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출발점이 바로 5·18세계민주대학이다.